

○ 황정견(黃庭堅)의 시와 서예의 만남 ○

그리고 화운 창작

글·한시 윤호 이진호
서예 초암 서성우

萬里青天雲起雨未
空山無人水流花開

구만 리 멀고 먼 푸른 하늘에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리듯
인적 끊긴 산속에서도 물은 흐르고 꽃은 필라네
황정견 시 수류 화개, 을사년 봄 초암 서성우



福

서예로 만나는 황정건의 한시

따뜻한 봄날, 초암 서성우(草庵 徐聖宇)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서예 작품을 받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붓으로 옮기신 글귀는 바로 북송(北宋) 시대의 시인이자 서예가인 황정건(黃庭堅)의 한시 ‘수류개화(水流花開) : 萬里青天雲起雨來 空山無人水流花開’였습니다. 장엄하면서도 담백한 서체로 쓰인 이 한시는 자연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삶의 이치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시를 마주하며, 자연의 섭리를 노래한 황정건의 시정을 깊이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구만 리 푸른 하늘 아래,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리는 변화의 순간, 그리고 인적 없는 빈 산에서도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자연의 순환은 인생의 흐름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사의 번뇌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자연의 법칙을 노래하듯, 황정건의 시는 무상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음을 전해 주는 듯했습니다.

황정건과 그의 문학적 영향

황정건(黃庭堅)은 북송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서예가로, 소동파(蘇東坡)와 함께 송대 문학의 중요한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특히 강서시파(江西詩派)의 창시자로서, 두보(杜甫)의 영향을 받아 절제된 언어 속에서도 깊은 정서를 담아내는 데 능했습니다. 그의 시에는 도교와 불교의 철학이 스며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사색하는 작품이 많습니다.

이번에 감상한 ‘水流花開’(물 흐르고 꽃이 핀다)라는 구절은 그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연의 순환과 변화의 이미지입니다. 황정건의 시풍은 단순한 자연 묘사를 넘어, 자연 속에서 인간 삶의 무상함과 희망을 함께 노래하는 철학적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풍은 후대의 문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까지도 그의 시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화운(和韻), 전통을 잇는 창작

서성우 선생님의 서예 작품을 감상하며, 저는 황정건의 시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來(래)’를 운자로 삼아 7언절구 한시를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화운(和韻)이라 불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존 시의 운자(韻字)를 그대로 받아 새로운 시를 짓는 형식입니다. 화운은 단순한 답시(答詩)를 넘어, 원작에 대한 존경과 공감을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지어본 7언절구 한시입니다.

題 : 春風和興(춘풍화흥, 봄바람에 화답하는 기쁨)

春風柳細綠堤來 (춘풍류세록제래)

봄바람에 가는 버들 독에 찾아들고

蕊落鶯啼夢裡開 (예락앵제몽리개)

꽃술이 저도 피꼬리 울며 꿈속에서 다시 피네

客舶江湖浮遠棹 (객박강호부원도)

나그네의 배 강호에 뜨고 먼 노 저으며

雲歸月下酒盈杯 (운귀월하주영배)

구름이 돌아가고 달 아래 술잔 가득하네

한시의 구조 분석

이 한시는 전통적인 7언절구(七言絶句) 형식으로, 총 네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起) - 첫 구

- 봄바람과 푸른 버드나무가 등장하며 시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승(承) - 둘째 구

- 꽃이 지는 변화의 모습과 피꼬리의 울음이 대비를 이루며, 자연의 지속성과 무상을 암시합니다.

전(轉) - 셋째 구

- 나그네의 배 등장하면서 시의 중심적 이미지가 이동하고, 여정을 강조합니다.

결(結) - 넷째 구

-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 달빛 아래에서의 술잔을 통해 마무리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모습을 담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독자가 자연스럽게 시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마지막 구절에서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봄이라는 계절감을 강조하기 위해 버드나무, 꽃, 피꼬리, 물결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에서 구름과 달빛을 통해 자연 속의 고요함과 인생의 한 장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한시 특유의 철학적 성찰과 함께 자연과 인생의 조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평측(平仄) 조화도 신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한시는 일정한 운율을 유지해야 하므로, 蕊落(예락)과 客舶(객박)을 통해 자연스럽게 축성을 배치하였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운자가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시의 정형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서정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화운 창작의 의미와 현대적 가치

화운은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선배 문인의 작품을 이어가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의 감성을 덧입히는 과정입니다. 기존 작품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과 감정을 더해 전통을 계승하는 창조적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와 서예가 보여주는 시간을 초월한 문학적 대화는 더욱 깊이 있는 감동을 줍니다. 황정견이 남긴 시를 서성우 선생님께서 서예로 옮기시고, 그것을 다시 제가 한시로 화답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술 창작을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문학적 유산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초암 서성우 선생님의 서예 작품을 감상하며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황정견의 시를 새롭게 음미하고, 거기에 제 감정을 담아 새로운 한시를 창작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문학과 서예가 현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이, 전통과 창작의 조화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학적 대화를 지속하며, 새로운 창작과 감상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글·한시 운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서예 초암 서성우(草庵 徐聖宇)

- 신사임당·이율곡서예대전 초대작가
- 한국서도협회 경기지회 초대작가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 입선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